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역량과 관련 요인 : 공감과 생명윤리 중심으로

유혜지¹ · 김미정²

¹충청대학교, 조교수 · ²가톨릭꽃동네대학교, 조교수

Nursing Students' Spiritual Nursing Competency and Related Factors : Focusing on Empathy and Bioethics

Hyeji, Yoo¹ · Mijung, Kim²

¹*Chung Che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Catholic Kkottongna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urvey aimed to examine spiritual nursing competency, empathy, and bioethics awareness and identify the effects of empathy and bioethics awareness on the spiritual nursing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who majored in nursing. **Methods** : A sample of 167 students was recrui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23 and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5.0. **Results** : Factors influencing spiritual nursing competency were empathy, bioethics awarenes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experienced education for spiritual nursing were associated with which explained 26% of the variances ($F = 12.14, p < .001$). **Conclusion** : The results showed the necessity for nursing students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o strengthen spiritual nursing competency through educational content on empathy, bioethics awareness, and spiritual nursing, as well as school-level efforts to improve school life satisfaction, are required.

Key words : Spirituality, Bioethics, Empathy, Nursing,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자 파시(Parse)는 인간을 생물적·사회적·심리적·영적 요소가 결합된 존재로 정의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제시하였다[1]. 즉, 인간의 건강은 한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조된다. 그 중 영적인 측면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실존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2].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 요구는 질병이나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한 위기와 스트레스, 또는 통증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 및 회복에 대한 불안 상황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2].

특정 상황에서 유발되는 영적 요구를 해소하여 영적 안녕(well-being)을 획득하는 전인적인 간호 활동을 영적 간호(spiritual care)라고 하며[2] 영적 안녕을 포함하는 돌봄은 간호사로 하여금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보다 안정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대상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3]. 영적 간호역량(spiritual nursing competency)이란 영적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환자의 영적인 간호 요구를 사정하고 요구에 따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4] 영적 간호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된다[5]. 그러나 간호사들이 영적인 간호 활동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함에 따라 영적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에서부터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강조된다[6].

공감은 타인의 정서와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6]. Narayanasamy[5]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영적 안녕과 공감 능력을 영적 간호제공자의 자질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간호사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감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7,8]. 간호사의 높은 공감 능력은 환자와 효과적인 치료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고, 보다 더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 영적 돌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9].

한편,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과학적 간호지식과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윤리 정신이 필요하므로 어떤 직업이나 학문보다 인간의 생명윤리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중요하다. 특히 현대의 의료기술 발달은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며, 배아 복제, 인공수정 및 낙태 등을 통해 인간의 삶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였다. 생명윤리 의식은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의학 분야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을 도와주며,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10]. 임상 현장에서도 생명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짐이 보고된 바 있어[11] 생명윤리 의식을 증진하여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간호 현장에서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장애요인을 보고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바쁜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다는 물리적 상황을 제외하고, 공통으로 언급되는 부분으로 충분한 교육의 부재가 제시된다[6,12]. Lewinson 등[6]은 간호학과 학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 중심의 전공 수업 위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영적 간호를 다루는 교과과는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으며, Ross 등[12]은 영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종교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점과 영적 돌봄 자체가 의료 평가 체계에서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임상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외시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영적 간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 교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13]. 즉, 간호교육의 커리큘럼 안에서 영적 간호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함에 따라 간호 현장에서 쉽게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호학부 때부터 시행된 영적간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임상현장에서 영적인 간호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특히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공감 및 영적간호역량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역량, 공감, 생명윤리 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공감, 생명윤리 의식, 영적 간호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생명윤리 의식, 영적 간호역량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공감, 생명윤리 의식이 영적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생명윤리 의식 및 영적 간호역량 정도를 파악하고,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도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구체적 선정 기준은 1)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 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2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선행연구[14]를 기초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effect size)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power) .95, 예측 변수의 수와 일반적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7개로 정했을 때 필요한 표본의 수는 153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7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하고 총 16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및 학교생활 만족도, 영적 간호 관련 교육 경험, 종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14-16], 주요 변수는 다음의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1) 공감

본 연구의 공감은 Lawrence 등[17]의 40문항 Empathy Quotient 척도를 Heo와 Lee[18]이 한국어로 변환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Heo와 Lee[18]의 한국어판 타당도 분석에 따라 총 17개 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범위는 17~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지수가 높음을 의미하며 Heo와 Lee[18]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Cronbach's α 는 .83였다.

2) 생명윤리 의식

본 연구의 생명윤리 의식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윤리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Kim[1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생명윤리 의식 척도는 생명 의료윤리(11문항), 생명 존중 윤리(11문항), 생명 공학윤리(11

문항) 세 영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된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범위의 5점 척도이며, 범위는 33~1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0]의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으며[1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였다.

3) 영적 간호역량

본 연구의 영적 간호역량은 Tiew와 Creedy[19]가 개발하고 한국어로 수정, 번안한 한국형 영적 간호 수행능력 척도(Korean version Spiritual Care Giving Scale)를 이용하였다[15]. 본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영적 간호를 위한 속성(8문항), 영성에 대한 시각(8문항), 영적 간호의 정의(6문항), 영적 간호 태도(4문항), 영적 간호의 중요성(3문항), 영적 간호 가치관(3문항), 간호와 영적 간호 동일시(3문항) 영역으로 구성되며,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의 6점 척도이며, 범위는 35~2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간호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n과 Kim[16]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8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 형식으로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연구 대상자에게 설명하며, 연구 참여 중 응답을 거부하거나 철회하여도 불이익이 없음과 설문지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는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동의한 연구 대상자는 동의서 서명을 하고, 자료 수집에 응답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만 알 수 있도록 부호화하여 처리한 후 잠금장치가 있는 장에 넣어 관리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수행은 C기관의 연구 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IRB No. 2023-xxx-000-02). 연구 대상자에게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미참여 및 중도 철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 설명문을 읽고 보고 동의하는 자만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연구 종료 후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 생명윤리 의식, 영적 간호역량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공감, 생명윤리 의식, 영적 간호역량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 분산분석을 진행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공감, 생명윤리 의식, 영적 간호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 수준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16명(69.5%), 남자가 51명(30.5%)으로 여자가 두 배 더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61명(3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학년이 51명(30.5%) 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99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 중에서는 가톨릭이 33명(19.8%)으로 높았다. 영적 간호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2명(31.1%)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115명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N= 1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n	%
Gender	Female		116	69,5
	Male		51	30,5
Grades	1 st		51	30,5
	2 nd		61	36,5
	3 rd		35	21,0
	4 th		20	12,0
Religion	None		99	59,3
	Catholic		33	19,8
	Christianity		28	16,8
	Buddhism		7	4,2
Education for spiritual nursing	Experienced		52	31,1
	Unexperienced		115	68,9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111	66,5
	Moderate		47	28,1
	Dissatisfied		9	5,4
Empathy		62,79±7,53		
Bioethics awareness		94,40±16,86		
Competency for spiritual nursing		153,37±27,58		

SD=Standard Deviation

(68.9%)보다 적었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66.5%(111명)가 만족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공감 수준은 평균 62.79±7.53점이었고, 생명윤리 의식 정도는 평균 94.40±16.86점, 영적 간호역량의 평균 점수는 153.37±27.58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생명윤리 의식, 영적 간호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정도는 종교,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가 없는 군보다 불교에서($F=3.53, p<.05$), 학교생활에 불만족한 군보다 만족한 경우($F=18.70, p<.001$)에서 영적 간호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 의식은 종교가 없는 군보다 기독교에서($F=3.56, p<.05$), 영적 간호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군($t=2.2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적 간호역량 정도는 영적 간호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t=-1.99, p<.05$)와 학교생활에 불만족하거나 보통 만족한 경우보다 만족한 군($F=12.7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3.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역량은 공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33, p<.001$), 생명윤리 의식($r=.28, p<.001$)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감, 생명윤리 의식과 가변수 처리한

Table 2. Differences among Variables (N= 167)

Variable	Categories	Empathy		Bioethics awareness		Competency for spiritual nursing	
		Mean ± SD	t/F Scheffé (p)	Mean ± SD	t/F Scheffé (p)	Mean ± SD	t/F Scheffé (p)
Gender	Female	62.19±7.92	1.56	94.15±16.94	0.27	150.77±30.46	1.85
	Male	64.16±6.43	(.170)	94.96±16.84	(.994)	159.29±18.44	(.079)
Grade	1	62.14±6.44		95.35±16.80		153.82±33.12	
	2	63.74±7.48	0.75	94.88±16.18	0.18	153.00±23.81	0.02
	3	63.00±8.52	(.522)	93.32±18.00	(.907)	153.77±23.53	(.997)
	4	61.20±8.56		92.60 ±18.03		152.65±31.24	
Religion	None ^a	61.42±7.08		91.26±11.08		150.53±25.26	
	Catholic ^b	65.15±7.88	3.53	102.09±27.46	3.56	156.15±37.59	0.94
	Christianity ^c	63.54±8.08	(.016)	95.15±15.31	(.016)	159.54±22.37	(.419)
	Buddhism ^d	68.00±5.54	a<d	96.43±10.26	a<c	155.86±21.75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a	65.08±7.35	18.70	94.22±17.77		160.07±19.82	12.72
	Moderate ^b	58.45±5.34	(<.001)	93.37±10.34	0.87	142.77±27.22	(<.001)
	Dissatisfied ^c	57.22±7.21	c<a	101.44±28.47	(.421)	126.11±63.25	b,c<a
Education for spiritual nursing	Experienced	62.79±7.40	0.00	90.14±14.58	2.21	159.65±25.93	-1.99
	Unexperienced	62.79±7.62	(.958)	96.41±17.54	(.416)	150.53±27.94	(.05)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 among Empathy, Bioethics Awareness, Competency for Spiritual Nursing (N= 167)

Variable	Empathy	Bioethics awareness	Competency for spiritual nursing
	r(p)		
Empathy	1		
Bioethics awareness	.12 (.120)	1	
Competency for spiritual nursing	.33 (<.001)	.28 (<.001)	1

Table 4. Factors Affecting Competency for Spiritual Nursing (N= 167)

Variables		B	SE	β	t	p	VIF
Empathy		0.57	0.27	.16	2.10	.037	1.23
Bioethics awareness		0.52	0.11	.32	4.55	.000	1.07
Education related with spiritual nursing [†]	Experienced	12.86	4.05	.22	3.17	.002	1.03
Satisfaction of school life [†]	Moderate	-10.90	4.57	-.17	-2.38	.018	1.12
	Dissatisfied	-34.86	8.51	-.29	-4.09	.000	1.19

R² = .28 , Adj. R² = .26 F = 12.14, p < .001 (Durbin-Watson 1.97)

[†] Education for spiritual care (reference group: unexperienced education related with spiritual care), [†] Satisfaction of school (reference group: satisfied), Adj.R²-Adjusted R-squared, SE=Standard Error,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영적 간호 관련 교육 경험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독립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 한계값과 분산 팽창지수를 확인하였으며 공차 한계값은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지수는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확인하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로 2에 가까워서 자기 상관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영적 간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공감, 생명윤리 의식 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영적 간호 관련 교육 경험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공감($\beta = .16, p = .037$), 생명윤리 의식($\beta = .32, p < .001$), 영적 간호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있는 경우($\beta = .22, p = .002$)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에 비해 '불만족'($\beta = -.29, p < .001$), '보통'($\beta = -.17, p < .05$) 순으로 영적 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6%였다($F = 12.14, p <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서 공감, 생명윤리 의식, 영적 간호역량 정도를 확인하고,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감과 생명윤리 의식은 각각 영적 간호역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학교생활 만족도, 영적 간호 관련 교육 경험과 함께 영적 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공감 평균은 여학생 62.19 ± 7.92 점, 남학생 64.16 ± 6.43 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공감 지수를 확인한 Park과 Jang[20]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평균 55.62 ± 7.77 점, 여학생은 56.88 ± 6.41 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공감 점수가 선행연구의 남녀 각 평균보다 높았다. 공감을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확인한 결과에서는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한 군보다 공감이 높았던 반면 Kim[21]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공감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종교에 따른 공감 정도에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불교를 믿는 학생에서 공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차이를 보였다. 최근 공감과 종교의 관계에 대하여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 연령, 사회적 바람직함(social desirability)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more religious individuals)이 더 공감적 경향이 있음을 밝히며, 이는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22]. 그러나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른 공감의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고[14,21], 공감 정도의 차이는 종교 유무에 따라 다르지 않고, 개인의 성격, 심리, 문화적인 것에 의해 차이가 난다는 연구[23]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식은 종교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교보다는 기독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종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종교가 있는 학생에서 생명윤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24]. 또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종교활동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생명윤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11] 종교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영적 간호와 관련된 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생명윤리 의식이 더 높았는데, 종교에 따라 생명윤리 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25]에 따라 영적 간호와 관련된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 종교의 분포를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의 비율은 42.6%였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36.5%의 비율로 나타나 이에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교육의 수강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관련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재검증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생명윤리 의식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성별(여>

남), 공감, 윤리적 가치관, 윤리교육 참석,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윤리 교육의 양과 질, 종교, 생명윤리 관심 정도를 유의한 요인으로 보고함에 따라[25-27], 추후 간호학과 교과 중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 제공 시 양적인 측면과 아울러 질적인 측면의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생명윤리 의식, 영적 간호와 관련된 교육 경험, 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생명윤리 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영적-윤리적 돌봄(spiritual-ethical car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돌봄이 윤리와 영적 상황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1]. 즉, 영적인 간호연구가 증가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와 같은 상황적 배경은 생명 윤리적 측면의 문제인 배아복제, 낙태, 안락사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2,10], 이에 따라 현재 의료분야의 윤리적 이슈에 관하여 간호학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영적 간호역량을 함께 향상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도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Kim과 Choi[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영적 간호에 있어 간호사 자신이 영적 간호의 도구가 되므로 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이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공감은 체험적, 경험적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7,8]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겠다.

영적 간호와 관련된 교육의 경험은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Ross 등[12]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영적 간호의 교육 전에 영적 간호역량 정도가 교육 후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고, 국내연구에서도 영적 간호 교육을 제공한 후 영적 간호역량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교육 후 점수가 유의한 상승을 보여[28]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적 간호역량은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14]

영적 간호의 경험이나 영적 간호교육의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15], 본 연구 결과에서도 종교에 따른 영적 간호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 요인으로 영적 간호와 관련된 교육의 경험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15]와 일치하였다. 즉, 서론에 언급한 것과 같이 영적 간호가 종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영적 안녕을 획득하는 전인적인 간호 활동[2]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공감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공감 역시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생활 만족도가 공감을 통해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학교생활 만족도와 영적 간호역량 사이에서 공감의 매개나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영적 간호는 간호에서 추구하는 전인 간호 수행을 위한 중요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현장에서 영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 간호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고, 추후 영적 간호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공감 능력, 생명윤리 의식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과 영적 간호 관련 교육의 경험이 있는 그룹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역량의 유의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제공자로서 영적 간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감 능력과 인간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를 늘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영적 간호교육이 직접적으로 영적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간호 학생 때

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영적 간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영적 간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필요한 표본의 수를 충족하였으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추후 연구 대상을 확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 요인 외에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추가한 후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Park YS, Kang HS, Kim HJ, An SH, Lee KS, Jo KS et al. Nursing theorists and their works I: Seoul, Korea: Daehaks; 2008. p. 3-512.
2. Kang SR.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 care. 2006;36(5):803-812.
3. Ra JR. Effects of a spiritually based training program on the spiritual and psychosocial wellbeing, and leadership of preceptor nurses [dissertation]. Seoul: Catholic University; 2011. p. 1-53.
4. Baldacchino DR. Teaching on the spiritual dimension in care to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Nurse Education Today. 2008;28(5):550-562.
<https://doi.org/10.1016/j.nedt.2007.09.003>
5. Narayanasamy A. ASSET: a model for actioning spirituality and spiritual care education and training in nursing. Nurse Education Today. 1999;19(4):274-285.
<https://doi.org/10.1054/nedt.1999.0637>
6. Lewinson LP, McSherry W, Keven P. Spirituality in pre-registration nurse education and practi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2015;35(6):806-814.
<https://doi.org/10.1016/j.nedt.2015.01.011>
7. Bavier AR. It's All About Care: the NLN at the forefront of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015;36(6):355.
8. Abdel Maqsood AS, Oweis AI, Hasna FS. Differences between patients' expectation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in a private hospital in Jorda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12;18(2):140-146.
<https://doi.org/10.1111/j.1440-172X.2012.02008.x>
9. Lee HJ, Park KM, Moon HK, Seo KW. Influence of empathy and resilience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8):613-624.
10. Kim S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ioethics awareness scale. Studies on Life and Culture. 2021;62:71-96.
<https://doi.org/10.17924/solc.2021.62.71>
11. Moon MY, Jeon MK, Jaung AH.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ournal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2013;14(1):27-47.
12. Ross L, McSherry W, Giske T, Leeuwen R, Schep-Akkerman A, Koslander T, et al. Nursing and midwifery students' perceptions of spirituality, spiritual care, and spiritual care competency: a prospective, longitudinal, correlational European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018;67:64-71.
<https://doi.org/10.1016/j.nedt.2018.05.002>
1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University guide for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in 202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3. p. 3-183.
14. Kim J, Choi SK. Influence of self-esteem, empathy and existential well-being on spiritual care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5;22(3):328-337.
<https://doi.org/10.7739/jkafn.2015.22.3.328>

15. Sim MR, Kim J, Choi SK. Influence of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existential well-being on spiritual care competence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7;24(4):286-295.
<https://doi.org/10.7739/jkafn.2017.24.4.286>
 16. An ES, Kim KM. Factors affecting spiritual care giv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7;19(6):3403-3416.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6.3403>
 17. Lawrence EJ, Shaw P, Baker D, Baron-Cohen S, David AS. Measuring empath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pathy quotient. *Psychological Medicine*. 2004;34(5):911-919.
 18. Heo JH, Lee CJ.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empathy quotient (EQ) Scale.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2010;0(24):183-200.
 19. Tiew LH, Creedy DK.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composite spiritual care giv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2;49(6):682-690.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1.11.014>
 20. Park SH, Jang C.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of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and their empathy for ot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19;7(4):203-212.
<https://doi.org/10.15268/ksim.2019.7.4.203>
 21. Kim EH, Lee YJ. Relationship of life respect consciousness, empathy, resilience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9;44(3):308-315.
<https://doi.org/10.21032/jhis.2019.44.3.308>
 22. Łowicki P, Zajenkowski M. Religiousness is associated with higher empathic concern-Evidence from self- and other-ratings.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2021;13(2):127-135.
<https://doi.org/10.1037/rel0000299>
 23. Ishii T, Watanabe K. Do empathetic people have strong religious beliefs? survey studies with large Japanese sample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22;33(1):1-18.
<https://doi.org/10.1080/10508619.2022.2057059>
 24. Kim KA.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respect for life, awareness of bioethics, and policy support related to abortion on abortion awarenes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2022;66:21-47.
<https://doi.org/10.17924/solc.2022.66.21>
 25. Kwon YH.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9;23(2):262-272.
<https://doi.org/10.5932/JKPHN.2009.23.2.262>
 26. Kang BH, Won SA, Kang HH. Levels of concern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6;19(3):340-357.
 27. Bae JH.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its related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1):271-278.
<https://doi.org/10.21184/jkeia.2018.1.12.1.271>
 28. Choi EJ. Effects of the spiritual care education on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are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2015;7:143-150.
-